

# 도심속 숲에서 지친 일상 치유 '파리지앵의 산소'

세계의 문화수도

## 파리 오디세이

(8) 파리와 공원



왕 사냥터·군사 거점으로 활용되다  
1860년부터 시민들 피크닉 장소로  
450곳 조성... 휴식문화 국가가 장려  
센강 인공해변, 매년 300만 방문



여름이면 센강변 3.5km에 걸쳐 조성되는 파리 플라주는 매년 300만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올해는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진행된다.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지난해 상 드 마르스 콘서트에 참가한 인파들.



블로뉴 숲에서 사이클을 즐기는 파리지앵.

파리에는 두 개의 폐가 있다. 제 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의 폐 두 개가 동쪽과 서쪽 끝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에게 휴식은 그 누구에게도 침범 받고 싶지 않은 영역이다. 이들에게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잘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파리 양 끝에 위치한 뱅센 숲과 블로뉴 숲이 주말마다 북적거리는 것은 파리지앵들이 커다란 녹색 공간에서 지친 일상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혁명은, 또는 민주화는 전제군주 시대의 왕들이 누리던 것들은 시민들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로 자리잡기 시작한 11세기부터 파리 동쪽의 뱅센 숲은 왕족의 사냥터로 사랑을 받았다. 뱅센 숲에 성을 짓고 본격적으로 드나든 것은 파리의 성곽을 지었던 '존엄왕' 필립 오귀스트였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숲으로 사냥터를 옮긴 뒤 왕족의 발길은 뜸해졌고, 루이 15세 때 일반에게 공개됐다. 프랑스 혁명 때는 군사거점으로 활용됐다. 지금도 '탄약지장' 등의 건물이 남아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경마장, 동물원, 식물원 등이 있으며 파리 시가 관리한 것은 나폴레옹 3세 치하의 1860년부터다.

뱅센 숲의 현재 크기는 9.95km로 서쪽 끝의 블로뉴 숲(8.46km)보다 큰 것은 물론 뉴욕의 센트럴 파크(3.41km), 런던의 리치몬드 파크(9.55km)보다 넓다. 파리의 전체 면적이 105.40km인 것을 감안하면 뱅센 숲과 블로뉴 숲을 합한 크기는 도시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블로뉴 숲은 뱅센 숲보다 더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메로빙거 왕조의 다고베르 1세가 블로뉴에서 곰이나 사슴을 사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역시 블로뉴 숲이 왕족의 사냥터로 자리 잡힌 것은 필립 오귀스트가 그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생-드니 수도원으로부터 사들이면서부터다. 필립 오귀스트 왕은 작은 성당을 하나 짓고,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북쪽 지방의 '블로뉴-쉬르-메르'의 지명을 따 숲을 '블로뉴'로 명명했다.

뱅센 숲이 파리 중산층들의 쉼터라면, 블로뉴에는 상류층 인사들이 주로 드나들었다. 혁명 이후 찾아온 벨 에포크에 부르주아지들이 뱃놀이 하며 피크닉을 즐기던 장소로 유명하다. 종종 소위 잘 나가는 귀족 부인들과 이들의 재산 또는 권력을 탐하던 바보들이들의 음탕한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

19세기 말의 병약한 천재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블로뉴 숲에서 산책을 하던 9살 때 처음으로 자신이 만생 천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뱅센과 블로뉴는 하지만, 파리 도심이 아닌 외곽에 있어서 파리지앵에게 주로 주말 코스다. 밤에는 또 슬립화되는 취약점을 갖고 있어서 청어나 마약판매상이 활동하기도 한다. 파리지앵의 일상을 지배하는 녹색공간은 오히려, 규모는 다소 작지만 주택가에 위치한 수많은 공원이 있다. 파리 시청이 관리하는 도심 내의 크고 작은 공원은 그 수만도 450여개에 달한다. 두 개의 대형 숲을 제외한 공원의 총 크기는 5.54km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든 파크에 견줄만한 파리의 대표 공원은 1612년 조성된 뉘상부르 공원이다. 파리 최초의 박물관이 생겼던 뉘상부르 궁에 딸린 공원이다. 라틴 구역과 대학가에 인접해 있어 젊은이들이 많고, 여름 휴가철에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채워진다. 아가자 기한 음악회들도 수시로 열려 아이를 둔 가족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향상 푸르고 밝기만한 이 공원에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대혁명 당시 궁은 교도소로 바뀌고 공원은 버려진 채로 남았다. 당통, 데콜랭 등 800여명이 이 교도소를 거쳐갔는데, 당시 공원은 재소자들을 면회하러 온 가족들에게 쉼터가 돼주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의 제3 전투 항공대 본부가 궁에 들어오면서 공원 출입이 일반인에게 엄격하게 통제됐다. 독일군은 공원의 지하에 병거를 조성해 포로수용소로 활용했다.

에펠탑에서 시작돼 센 강 반대편에 위치한 육군 사관학교까지 뻗은 상 드 마르스 공원에 도심 공원으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썸머 타임으로 낮이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여름에는 피크닉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해질녘에는 가족단위의 산책객들이 공원을 메우고, 여행객들은 에펠탑을 배경으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이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맨다.

상 드 마르스는 에펠탑이 생기기 전인 대혁명 때에도 이미 군중의 집회 장소로 빈번하게 사용됐다. 바스티유 습격 사건의 2주기를 맞는 1791년의 6월 어느 날 루이 16세 가족이 해외로 도망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7월17일 성난 군중 루이 16세의 폐위 청원 서명을 위해 수만명이 상 드 마르스에 모였다. 그러나 파리 시장 바이이가 민병대에

계 군중들을 향해 발포하도록 명령했다. 상 드 마르스 학살 사건으로 당시 시장이던 바이이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민병대를 이끌던 라파이에트는 민심을 잃었다.

상 드 마르스는 에펠탑이 건축된 뒤로 잔디가 깔리고 공원으로 변모했다. 에펠탑을 뒤로 하고 무대를 설치해 벌이는 콘서트도 종종 열린다. 한국의 조용필 쫓겨는 프랑스의 국민 가수 자니 할리데이는 2000년 상 드 마르스에서 콘서트를 열어 60만명을 끌어모았고, 지난해 혁명 기념일에 열린 인권단체 SOS 라시즘의 콘서트에는 100만명이 모였다.

도심 공원의 수가 450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금도 새롭고 더 나은 녹색 공간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 중이다. 휴가를 떠나거나 공원에서 쉬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다. 이런 프랑스인의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름이면 센 강변에 3.5km에 걸쳐 조성되는 파리 플라주('해변'이라는 뜻)다.

사회당 출신으로 2001년 파리 시장에 당선된 베르타랑 들라노에는 당선 이듬해인 2002년 휴가가 한창 고조에 달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센 강변도로에 차량 진입을 완전 통제해 뒤 모래를 깔고 파라솔을 설치했다. 경제적 또는 시간적 이유로 바닷가에 갈 수 없는 파리지앵들을 위한 배려였다.

한 해 행사 비용이 200만 유로(약 30억원)를 웃돌아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들라노에 시장은 사업을 접지 않았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파리 플라주는 매년 300만명이 넘게 찾는 명소가 됐다.

베를린, 브뤼셀, 부다페스트 등 유럽의 다른 도시들이 파리 플라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심 해변을 열어 운영 중이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